

안동종친회정기총회 개최

안동종친회 (회장 권재주)는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안기천로(태화동) 안동권씨종친회관 2층에서 제 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 권재주 안동종친



△안동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주연 선임회장이 선출되었다.

회장을 비롯하여 권두갑 고문,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영세 안동시장, 권광택 등 안동시의원 당선자 4명, 고문, 부회장, 상임 및 운영위원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조모 소망배, 회장인사, 축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2013년도 결산보고, 2014년도 예산안 심의, 임원개선 등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권재주 회장은 6.4지방선거에 권문으로 당선된 권영세 안동시장과 권기택, 권기탁, 권광택 등 시의원 3명 등 모두 4명에게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시의원에 당선된 권남희는 이날 다른 행사장에 참석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당선자들은 모두 안동시민과 족친 여러분들의 덕분에 당선되어 고맙다며 안동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였다. 꽃다발 증정이 끝나자 권재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족친들의 성원에 힘입어 안동시장과 시의원 3명이 재선을, 홍일점인 권남희 여자의원이 초선에 각각 당선되는 등 권문에 경사가 닳으며 더욱이 고인이 된 권삼석씨의 장남 영진씨가 대구시장에 당선되어 권문을 빛내는 등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당선자들에게 초심을 잊지 말고 후세에 이음이 남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원 임기거 만료되었으니 10여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고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종친회 발전을 위해 뒤에서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는 격

려사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해 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지난 6.4지방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분들에게 축하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족친 모두가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즐거움을 주었기에 감사하다고 말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4년간 일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족친 여러분에게 고맙다며 앞으로 낙선자의 좋은 이야기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안동을 위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했다.

임원개선에서 권오국 안동종친회 부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7명의 전형위원에 의해 권주연(權圭衍) 대종원 부총재가 안동종친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와 더불어 현 감사인 권정식, 권순협을 그대로 유임 시켰다.

권주연 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재주 전회장이 종친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다고 고노를 치하한 후 나도 앞으로 종친회를 위해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권주연 선임회장(77세. 37世. 부호장공파)은 안동경안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새마을금고 연합회 안동시군, 의성군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경북가스 전문검사소 회장을 맡고 있다.

2시간 30여 분에 걸친 총회가 끝나고 참석자 전원은 회관 내 1층 <안동간고등여 양반밥상> 식당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다가 헤어졌다. 이날 주회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멀치 한 통씩 선물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창녕종친회 제77차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영백씨 선출

창녕종친회(회장 권화성)는 지난 4월 26일 오전 11시, 창녕군 영산면 도리원에서 족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광규 총무의 사회로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한 망배에 이어 권화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즈음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않아 종친회가 활성화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상호 연락해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임원 선출에 들어가 선임



△창녕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화성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장에 권영백씨(69세)가, 부회장에는 권계수 점동, 갑술, 천식 총무 광규씨가 선임되었다.

〈총무 권광규〉

북야공파부녀회 정기총회

북야공파부녀회(회장 권연화)는 6월 17일 오전 11시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북야공파종회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과 부녀회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박춘조 총무의 개회선언에 이어 시조묘소(始祖墓所) 및 파조단소(派祖壇所) 망배(望拜)와 상음례(相揖禮)가 있은 후 권연화 부녀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부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가운데도 파종회 고문과 회장단 여러분이 참석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고 연임 임기 4년 동안 부족한 저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면 보다 더 알찬 부녀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계동 파종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농번기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북야공파인 시장과 시

의원 등 3명이 당선하여 기쁘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이 분들이 시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5월 14일 북야공파 부녀회가 창립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을 하였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고 단결을 다지는 뜻이 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의 부인 송태령씨는 축사에서 족친들의 성원에 힘입어 남편이 시장에 당선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고 북야공파로 시의원에 당선된 권광택, 권남희 두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게 도와주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시장 부인과 더불어 세 사람이 함께 큰 절을 올렸다. 권연화 회장은 당선자 3명에게 일일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박춘조 총무의 경과보고와 권명순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2013년

설암(雪岳)선생 모암계(慕岳契) 총회

지난 6월1일 대병면 성리 죽전마을 삼산재(三山齋)에서 모암계(慕岳契) 갑오년 연례총회가 열렸다. 모암계는 북야공파 감정공 삼과당(三槐堂)계 시조후 35세 설암(雪岳) 권옥현 공을 기리기 위하여 문인 후학들이 그 호를 따서 지은 계모임이다. 죽전마을은 고인이 출생하여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며 삼산재는 안동권씨 중종재실이다. 설암공은 북야공파 감정공계 35세 추연(秋淵) 권응현 선생의 적전(嫡傳)으로 1909년 88세로 별세하였다.

모암계는 공의 별세 후 3년이 지난 2002년에 그의 문집 18권 6책이 발간되면서 그 문인들과 후학들이 결성하여 매년 6월초에 정례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15년째이다.

모암계는 매년 고인이 만년에 거처하던 고종(考終)한 고택인 부산금정구 남산동 소재 금남서당(金南書堂)에서 가졌는데 올해는 공이 기세(棄世)한지 15주년이 되는 해로 고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고향인 합천에서 열렸다. 총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고인의 생가에 들렀다가 근처 삼산재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는 서울에서 허호구(許鎬久:단국대교수), 유효수, 권해옥(권정회사무총장, 부산에서 권길상(權吉相: 부산종친회장)을 비롯하여 40여명의 회원들이 버스한 대로 참석하였고, 대구, 진주, 김해 합천 등 경향각지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삼가향교(정교 송철영) 15여명과 기주 친지, 죽전마을 노인회, 창년회, 부인회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총회는 정영만(鄭永萬) 유사의 사회로 개회되어 상음례(相揖禮), 묵념, 회장인사, 경과 및 결산보고



이성규(李成圭)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강론과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론은 부산경성대학교 정경주(鄭景柱)교수가 하였다.

내용은 설암문집에 권(卷) 6에 있는 고인이 20대 중반 젊은 시절인 1930년대 일제식민시대에 동네 동북쪽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바위를 독대(獨臺)라 짓고 앉을한 시대에 대한 감상과 자취를 읊은 ‘독대소기(獨臺小記)’ 대해 우렁찬 목소리로 원문과, 한글로 번역문을 상세히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강론에 이어 유사 발의로 지금까지 모암계 제강 이병혁(李炳赫: 전 부산대 교수)가 건강 이유로 차기회장으로 단국대 중산(重山) 허호구교수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죽전마을 부인회에서 준비된 푸짐한 식사를 하고 총회를 마쳤다. 부산회원들은 수려한 풍경으로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았던 근처 용문정(龍門亭), 함박루(涵碧樓)를 둘러보고 선조들의 문헌을 감상하였다.

(부산 지회장 권길상)

영양종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경호씨 선출

영양종친회는 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 영양읍 산청종친회관에서 권오순 고문, 남여족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용우 감사의 사회로 상례행사에 이어 권영기 회장의 인사와 권영근 감사의 감사보고, 권용우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이어서 임원 선출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경호 씨(前 경북도의원)를 감사에 권중운, 용우씨를 선출했다. 다음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 인사와 군수내외 분게서 당선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



△영양종친회 정기총회에서 권경호 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었다.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권경호 ▲부회장 : 권명달, 재문, 영희, 기수, 상운, 철호, 종규, 무원, 상구, 석술 ▲감사 : 종훈, 용우 ▲총무 : 종범

〈권학세 기자〉



△북야공파 부녀회 정기총회에서 권연화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 결산보고후 임원개선이 있었던 데 부녀회 부회장들과 자문위원을 포함한 9명이 옆쪽 사무실에서 진지한 협의를 하여 권명순 부회장이 관대란을 추천하니 부회장 모두가 찬성하고 자문위원들도 이에 찬성하였으며 관대란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감사는 권명순 강인숙을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관대란 선임회장은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중책을 맡아 마음이 무겁다며 문중 일에 아는 것이 없으나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관대란(權大蘭 63살 36世) 선임회장은 안동고대,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출발하여 교감, 장학사, 학무과장, 교장, 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교육장을 역임하다가 명예퇴직(名譽退職)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제비원축산가든>에서 화가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관대란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많은 봉사하여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추밀공파 목사공 종회 시조묘소 참배



△권태균 추밀공파 화산부원군계 목사공회장이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우현동 거주추밀공파화산부원군(17世 諱 復)권태균 회장 및 후손 30여명이 관광버스편으로 안동 시조

묘 묘소와 낭중공 관소를 참배하고 이어 태사묘를 알현하고 귀로에 영주 선비촌을 탐방했다.

〈권학세 기자〉

정읍종친회안동태사묘, 능동양소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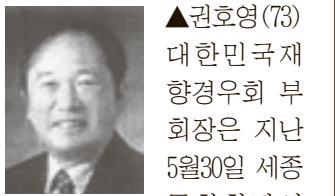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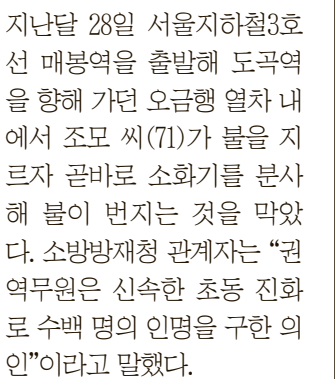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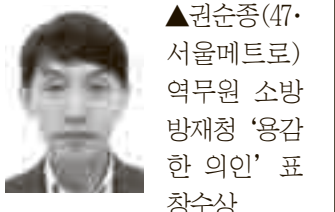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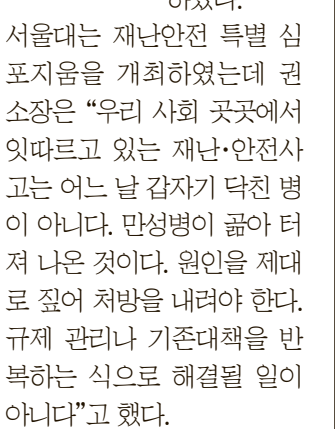
△정읍종친회가 태사묘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종친회(회장 권재원) 회원들이 6월 14일 안동태사묘와 능동 양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안동에 왔다. 이날 회원 31명은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오전 7시 전북 정읍시를 출발하여 약 4시간 만에 안동에 도착하였다. 대종원 권계동 상임부총재는 정읍에서 참배단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한걸음에 달려와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안동태사묘(安東太師廟)에 도착한 참배단장인 권재원(權在元) 회

장이 태사묘관리위원회 장은주 사무국장의 도움아래 관복(冠服)을 갖추고 태사묘 안동권씨사무실 권영목씨의 안내에 따라 위패가 모셔진 태사묘우(太師廟宇)에 들어가서 헌작(獻爵)하고 밖으로 나와 함께 알묘(謁廟)하였다.

알묘를 마치고 태사묘우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記念撮影)하고 보물각(寶物閣)에 있는 삼태사의 유물과 공민왕이 하사(下賜)한 고려 때 보물을 포함하여 모두 11종 22점의 귀중한 유물(遺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제38차 정기 전국총회에서 3년 임기의 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선 출되었다.

▲권범근 안전성평가연구소 경남환경독성 본부책임연구원팀인 전남대 정선용 환경에너지 공학과 교수 등은 음식물쓰레기 속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스펀지를 넣고 꾸준히 물을 뿌리며 썰어주는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99%까지 줄이는 데 성공하여 즉 미생물을 이용 수프처럼 걸쭉하게 분해하여 오염·악취 없이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데 성공하였다.

정읍시종친회 권영소 총무는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나니 후손 된 도리로 마음이 흐트러짐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핏줄이 아닌가 싶다며 즐거운 표정을 짓었고 젊은 청년들은 송조이념(崇祖理念)의 표출(表出)인 낭중공단소에 있는 잡초를 뽑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능동재사(陵洞齋舍)의 추원루(追遠樓) 문이 잠겨 내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참배단은 바깥 계단에서 기념촬영을 한 후 오후 3시 경 전세버스를 타고 정읍으로 향할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건〉